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 도구로 쓰인 40년 넘은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는 건 너무 억울해

나는 가장입니다. 자식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우리 애 입에 고기반찬 양껏 먹이고 학원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구청은 이천만원 받고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묻지를 않나요?

나는 딸린 식구가 많은 가장이란 말입니다.

우릴 가지고 돈 잘 벌던 포주 건물주들은 벤츠타고 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재개발로 돈 벌겠다고 하루 아침에 나가라는 겁니다.

영세 서민 아파트 들어서는 거 아니더만요.

우리 동네 짝 밀고 복합건물 세워서 임대사업으로 돈 버는 거 더만요.

우리는 포주 건물주들에게 퇴직금이랑 이주보상금 받아내고 싶어요.

화대를 60프로 씩이나 떼어가고 방세에 식대에 옷값까지 가져가고서

이런 저런 이유대며 뜯어가고서

이렇게 갑자기 집과 일터에서 쫓아내면서까지 어떻게 한푼도 안 줄 수가 있어!!

당장 어디로 가나요? 나만 믿고 있는 우리 가족들 어떡하죠?

우리동네 다부서지고 건물 하나 남아서 거기 다들 모여 있어요

어제도 차 세대가지고 와서 건물 들이 받을 거라고 협박하고 갔어요

누가 포주들 아니랄까봐 끝까지 깡패짓이에요
우리한테도 좀 와서 도와 주세요

와서 아줌마들 손 좀 잡아줘요. 우리들 좀 도와줘요

연대자를 모집합니다.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않을까요?

반성매매진영, 성노동인정진영, 스까, 워마드 등등

진영 논리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재개발 현장이 그렇듯 집창촌의 사람들도 강제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와 같은 피와 살과 통각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외롭게 싸우는 집창촌의 여성들에게 연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합측에서는 6월 21 집행관도 없는 불법적 강제철거를 시도했습니다.

포크레인과 망치를 들고 기물파손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승의동 집창촌 옐로하우스의 건물들은 거의 다 철거가 되었고

40여명의 언니들이 모여 투쟁하고 있는 옐로하우스4호집만이

폐허가 된 허허벌판에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위한 석유통과 이불들을 쌓아놓고서요.

포주건물주들이 항상 욕하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던 언니들한테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헬로우! 옐로우!

트위터와 인스타에서 옐로하우스를 검색해주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506-176717 이정은